

이재명 지지 선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사모 등 홍준표 지지모임·금융계 전현직 임원 등
홍 지지모임 “진정한 보수 가치 지켜야… 단일화 파행”
금융계 임원 157명 “금융산업 이해력 높고 비전 제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단체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먼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홍사모’, ‘홍사랑’ 등 일부 모임과 대선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캠프 관계자들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 등 모임과 홍준표 캠프 출신 관계자들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10 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사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저희들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는 것이 저희 일차적 목표”라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도 하도 많이 당하셔서 탈당 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께서 보수 인재들을 모으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셨다”, “우리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가를 위한 인재는 다 포용하겠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 압도적 승리를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가치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보수·중도 이런 분들을 그쪽 언어로 계몽 되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에 대한 사죄와 뼈를 깎는 반성도 모자랄 판국에, 윤석열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우리는 홍 후보가 꿈꿨던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통합의 가치를 피력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 지지 그룹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환영한다”며 “이 후보의 대국민 통합 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계 전·현직 임원 157명도 이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금융권 출신 전현직 임원 157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야말로 금융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높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왔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며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157인의 금융인이 이재명의 금융 개혁 비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밝힌 오늘의 선언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대전환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K 이니셔티브, 금융 규제 개혁,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지지 선언에서 강조한 내용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실질적 과제”라고 했다.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 “임원까지 올라간 분들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7명이나 되는 금융권 전현직 임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녔다”며 “코스피(KOSPI) 5000’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등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실행시킬 후보는 이재명이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산업이 이제는 보다 능동적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는 언제나 금융산업 이해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금융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책임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K 이니셔티브 적극 뒷받침 △금융 규제 개혁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한국노총 전북지역 본부와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연맹 조합원 대표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김재훈 기자



13일 오전 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외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정권 재창출 이룰 것”

한국노총 전북본부, 이재명 민주 대선후보 지지 선언

전국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식 지지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도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권기봉)는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후보”라며 “전북지역 5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을 비롯해 한노총 소속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지방대표 및 자동차노조 등 20여 명의 주요 조합 임원이 참석해 지지 입장을 함께 밝혔다.

권기봉 한노총 전북본부 의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을 국민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처벌받지 않는 일터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지지정당으로 결정했다”며 “전국 150만 조합원과 함께 조직적인 총력 대응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본부 산하 5만 노동자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의하며,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지부 박병철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군 출신으로 현장 노동의 고단함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라며 “그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익산시지부 전세성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노동자의 역사적 책무”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주권, 평등,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지부 최한식 의장은 “국민의

힘은 자신들을 보수정당이라 자처하면서도 내란 음모세력에 침묵하거나 동조해 왔다”며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법을 악용해 노동 현장을 억압하고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그들이 다시 집권한다면 노동자의 권익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읍시지부 이권로 의장은 “한노총 전북본부는 지역 조합원과 도민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모으고 조합원의 실천을 이끌어내 투표율을 높이며, 지지율 95% 이상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지역 자동차노조 임형민 위원장과 박흥기 사무국장 등 한노총 소속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노동 중심 이재명”,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선 승리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격적인 선거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개발로 인한 수산업 피해 등 집중 문제 제기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오현숙 도의원, 새만금위 민관협의체 재구성 요구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상임 공동대표 오창환 등 9인)와 정의당 오현숙 전북도 의원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결정에 대해 “관리수위 -1.5m 제한이 달린 불안정한 조치”라며 상시 해수유통 전환과 어민 생존권 보장, 수변도시 안전성 재검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회원과 피해 어민, 종교계 인사 등 10여 명이 함께했으며, 새만금 개발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생태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제32차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처리해 발표했다”며,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변경안과 해수유통 효과 종합평가, 수질개선 대책, 불법어업 단속 개선안 등이 논

의됐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며, 어민 생존권 보장과 수산업 복원 대책이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변도시의 졸속 분양을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환 상임공동대표는 “해수유통 결정 자체는 의미 있지만, 관리수위 -1.5m 유지라는 전제가 붙은 이상 실질적인 해수유통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부분적 조치로는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어업 단속이 해법이 될 수 없다. 해수유통 확대에 따른 어민 생존권 보장과 수산업 복원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새만금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영구적인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민관협의

체 중심의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 개발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도 발언에 나섰다.

김원택·김종주·조창곤 씨는 차례로 연단에 올라 “새만금호 수질 악화로 인해 바지락, 낙지 등 어패류 수확량이 급감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보상과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생명 평화운동에 앞장서 온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도 참석해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연대해 정부에 해수유통 전면 확대, 어민 피해 대책 마련,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한국스카우트센터 관련 약속 미이행에 책임있는 사과 우선돼야”

이수진 도의원, 정책감담회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최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논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 감담회를 통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둘러싼 운영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담회에는 이수진 의원, 이성호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채성영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선, 2023캠버리 유치를 위해 개최계획서 6대 공약 중 하나로 세계 캠버리 야영지 내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조성하여 한국연맹에



계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4년 4월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센터 관련 약속 미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의 세계 연맹본부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개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이행보장서’를 제출한 만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전북

도의 책임 있는 사과를 주문했다.

게다가,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에만 의지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일 뿐,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국연맹으로의 위탁·운영 공약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논란 해결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감담회에 참석한 전북교육청은 현재 연맹본부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야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자체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더민주전북 공동대표
균형발전 전북특별도당장에 임명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조지훈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보단장의 지역 균형발전 전 전북특별도당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후보 총괄특별단은 조지훈 공동대표가 속한 균형발전 외에도 청년·문화·노동·법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과 지역 사회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달하는 조직으로 전국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국민과 이재명 후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조지훈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을 “헌법을 파괴한 내란 세력과 헌법을 수호한 민주시민의 대결”로 규정하고 위헌과 불법의 비상계엄을 옹호·방조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율러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전북·전주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지역회복 활성화’·‘소상공인 손해보상’ 등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최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지훈 공동대표는 균형발전 전북특별도당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 “경청과 통합이라는 민주당의 선거 기조에 부응해 전주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이 직면한 문제를 듣고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해 3224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에 전주시가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소화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군산김제부안갑 선대위원회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신영대 군산김제부안갑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황진 공동선대위원장, 고영란 전 군산시가독교연합회 회장, 남대진 군산 촛불행동 대표 최유정 여성·주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여성·주부 대표로 무대에 오른 최유정 시민은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사회의 이념 정쟁이 가깝스로 균형을 이루었다”라며, “새로

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촛불행동 남대진 대표는 “3년간의 촛불시위로 드디어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아직도 내란세력이 남아 있다”며 “진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민이 80% 이상 투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득표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고영란 군산시 전 기독교연합회장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군산시민이 힘을 모아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어 “모든 군산시민이 투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득표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

민주 완주진안무주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3일 완진무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완진무 합동유세를 통해 이재명 후보 압도적 승리를 위한 총력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완진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 원로, 청년, 여성,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규모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완진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를 자랑했다.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완진무 합동유세 현장에는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안호영 의원은 유세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캠버리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관련 예산을 70% 삭감하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전북이, 완진무가 이번 대선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외쳤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유일한 리더”라며, “완진무가 중심이 되어 대도약, 대전환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